



글·사진 홍 하 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캠블라제 마을 풍경



남 프랑스 캠블라제 마을의 공중화장실



▲안토니오 공베르 신부의 생가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필자

안성포도의 유래

내가 사는 안성은 포도로 유명한 고장이다.

여름이 되면 포도밭으로 포도를 먹으러 다녔다.

언젠가 우연히 안성에 처음으로 포도를 가지고 온 분이 안토니오 공베르(1875-1950)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님인 것을 알게되었다.

대체 이 분은 언제, 어디서 포도를 가지고 와서 안성 땅에 전해준 것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다.

몇 달간 조사를 해보니, 이 분은 남 프랑스의 아베이롱 지방에 있는 캠블라제라고 하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 인근에 있는 호데즈 신학교를 나와 파리의방선교회로 올라간 후 거기서 사제서품을 받고 서기 1900년 10월 안성의 구포동에 처음으로 천주교 성당을 연 분이였다.

그렇다면 안성에 머스캇 포도가 처음 심어진 것은 서기 1900년 무렵부터인가, 아니면 그 후인가. 그런 의문이 생겼다.

포도 전래에 관한 공식기록을 보니 우리나라에 서양포도가 들어온 것은 서기 1904년 독심 원예시험장에서 프랑스, 독일산 포도를 들여다가 시범재배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안성 포도도 독심원예시험장에서 그 묘목을 가져다 안성에 심었던 것일까. 그러나 안성 측 기록에는 그런 말이 없다.

5년 전쯤, 파리에서 스페인 쪽으로 내려갈 일이 생겼다.

스페인 국경으로 향하면서 안토니오 공베르 신부님의 고향이 멀지 않은 곳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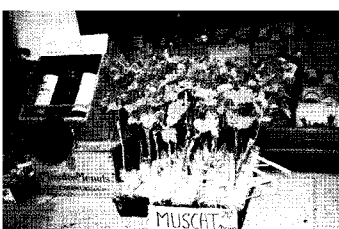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전문위원

—MBC 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서 : '일본뿔곰목 옛보기', '프랑스 뿔곰목 이야기', '지구촌 뿔곰목 음식 한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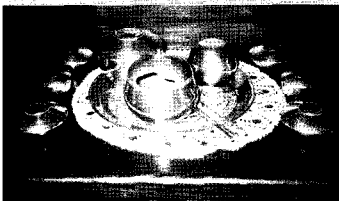
—소설 : '외인부대원 포레알'



▲남프랑스 시장에서 팔고 있는 머스컷 포도모듬



▲안토니오 공베르 신부



▲안토니오 신부 생가에 보존되어 있는 안성방짜유기

나치게 되었다. 남 프랑스에도 포도밭이 많이 있었다. 그때 기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 신부님이 이곳 고향에서 포도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몇 해를 보냈다.

재작년에 드디어 안토니오 공베르 신부님의 고향을 찾아갈 기회가 생겼다. 파리에서 스페인의 국경 못미처에 있는 피레네 산맥 인근의 톨르즈시를 거쳐 다시 호데즈시로, 거기서 다시 안토니오 신부님의 고향, 캄블라제 마을에 갔다. 캄블라제 마을은 60여호의 아주 작은 마을, 목가적인 남 프랑스의 농촌이었다. 신부님이 살았다는 하얀 2층집에 들어섰다. 집주인인 알랭 공베르씨(72)씨를 만났다.

캄블라제에서 만난 안성유기

알랭 공베르씨는 안토니오 신부님 형의 손자였다.

그가 뜻밖의 한국에서부터 날아온 진객을 맞이한다. 신부님이 프랑스를 떠난 건 1900년이니 100년 만에 신부님을 찾아온 손님인 셈이다. 알랭 공베르씨가 포도주를 내와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그가 찬장에서 무얼 꺼내온다. 가만히 보니 안성의 방짜유기 한 세트이다. 어떻게 안성의 방짜유기가 여기까지 와있는 것일까.

선진국이란

이런 시골마을의 공회당 화장실까지도 신경을 쓴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유를 물으니 서기 1925년 안토니오 신부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향을 다녀갔는데,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방짜유기는 신부님이 조카의 결혼식 선물로 주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것이라 한다.

낯선 곳에서 뜻밖엔 안성유기를 보니 웬지 감회가 새롭다.

신부님이 살던 집은 마당이 1천평은 넘어보이는 전원주택이다. 닭과 거위가 밭에서 한가롭게 먹이를 쪼고 있었다. 그 곁에 탐스런 머스컷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가 서있다. 한 송이 따서 먹어보니 맛이 아주 달다. 신부님은 이 맥에서 9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곳 초등학교 교장, 어머니는 심신 깊은 가정주부였다. 청년 안토니오는 신부가 되고 싶었으나 부모가 반대하는 바람에 동생 줄리앵고와 함께 밤에 담을 넘어 신학교로 도망쳐서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먼 동방으로 선교의 꿈을 가지고 파리외방선교회의 일원이 되어 한국에까지 왔다. 안성에 도착했을 때 안성지방에는 신자가 여요셉 이라는 단 한 사람 뿐이었다. 그는 안성 구포동에 움막같은 성당을 열고, 신자들을 늘려나갔다.

그 무렵, 그가 파리외방 선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다.

6년동안 나의 활동은 단순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부인이 스무살 된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그 청년은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청년은 극도로 아위고 창백했고 목소리는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열이 나서 헐떡거리는 목을 시원하게 하고 싶으니 포도 한 송이를 달라고 했다.

나는 그를 내 옆에 앉게 하고 그가 포도를 맛있게 먹는 동안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캄블라제마을 공회당



안토니오 신부의 후손들이 생가에 모였다.

최초의 안성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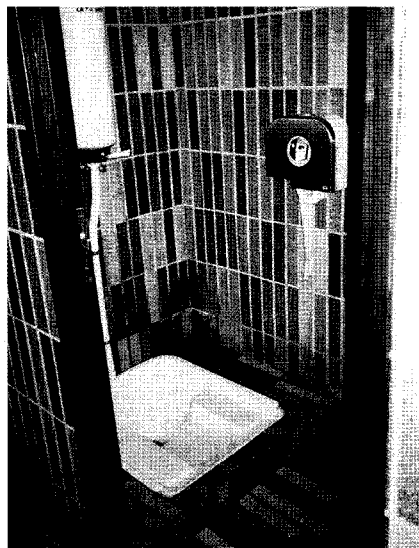
신부님의 편지 속에는 포도가 나온다. 신부님이 이 편지를 쓴 것은 1907년이다. 서기 1907년, 안성 땅에는 이미 알이 달린 포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포도는 심은지 최소한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달리는 과일이다. 그렇다면 안성에는 1904년 이전에 이미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공식기록에는 1904년부터 똑섬에서 포도묘목을 재배하기 시작했다하니, 묘목을 재배하자마자 안성에 이식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안성의 포도나무는 안토니오 신부가 프랑스 땅을 출발할 때 이미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된다. 파리 외방선교회의 제랄드 원장신부에게 물어보니 당시 동방선교를 나갔던 신부들이 미사용 포도주를 조달하기 위해 포도를 심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안토니오 신부는 미사용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똑섬 원예종묘장 보다도 더 이전에 안성 땅에 포도를 심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들이 퍼져 오늘날 안성이 우리나라 최대의 포도밭이 되고, 1년에 280억 정도의 농가 소득을 농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먼 프랑스에서 두 달간이나 배를 타고 안성에 포도나무를 가져오신 안토니오 신부님. 안토니오 신부님의 고향 캄블라제의 마을길을 걸어본다. 한가롭게 지나가는 소떼들, 바람에 날리는 포도나무들, 그리고 울망졸망한 꽃동산들. 한적한 시골마을을 돌아다니는데 그만 오줌이 마렵다. 아까 신부님의 손자와 마신 포도주 때문이다.

선진국은 시골마을 화장실도...

마침 마을 공회당이 있다. 그곳의 화장실로 들어갔다. 60여 호에 인구 1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마을의 공회당 화장실. 화장실은 단 1개의 소변기와 용변기 밖엔 없다. 하지만 아침마다 누가 청소를 하는지 물 한 방울 없이 깔끔하고, 휴지도 잘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자도 별로 안 보이는 데도 물도 잘 나오게끔 미리 미리 관리를 잘하고 있다. 간단하면서도 청결하다. 선진국이란 이런 시골마을의 공회당 화장실까지도 신경을 쓴다. 우리나라 같으면...

불일을 보고 나왔다.

100년 전에 안성에 포도를 가져오신 신부님의 동네에 와서 안성포도의 유래를 밝히고 나니 기분이 좋다. 화장실을 찾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던 파리시내와 달리 화장실이 쉽게 눈에 띄어 그것도 마음에 든다. 그리고 들어간 화장실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더욱욱 기분이 좋다. 재작년 10월에 찾았었던 안토니오 신부님의 고향, 캄블라제의 추억이다. 서기 2000년 바로 작년에는 그런 연유로 <안성포도 100주년 축제>가 대대적으로 개최되었다. 캄블라제 마을의 안토니오 신부님의 후손들도 초청되었음은 물론이다.



▲캄블라제마을 공회당 화장실